

행정구역은 市, 교육 여건은 농촌

나주 농촌교육 지원 정책서 소외

市지역 이유 '농어촌 기숙형공립고' 제외

수도권 대학 특례입학 대상서도 빠질 위기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서 나주시가 소외돼 지역 교육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현재 38 능가 대동면 일대 12단지 5만3천여 m에서 미꾸라지 양식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진해 나후면 농촌형 학교가 많은 나주시역 고등학교가 기숙형공립고 선정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나주시를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해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의 '농어촌특례입학' 대상 지역이었으나 최근 교육부의 '농어촌특례전형' 방침 변경 추진으로 이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최근 신활력지역을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농어촌대입 특별대상자를 군단위 읍·면지역 거주학생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갈수록 열악해지는 나주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과 주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 K.O.(47·나주시 성북동)씨는 "획일적인 교육정책에 따라 나주시

역 교육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관내에 변변한 명문고가 없는 것도 잘못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전남도교육청 김승호 중등교육장 장학관은 "나주관내 고등학교가 기숙형공립고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학특례입학도 현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15일 개장하는 장흥 해양낚시공원

전국 최초의 해양낚시공원이 장흥군 회진면 대리에 조성돼 오는 15일 개장한다. 장흥군은 35억원을 투입해 진입도로와 해안데크, 정자, 낚시교, 해상 낚시터, 안내소를 설치하고 인공 어초도 투하했다. 하루 이용요금은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원. /위경라기자 jrwi@

미꾸라지 양식, 농가 새 소득원으로 인기

합평군에 조성된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와 합평군은 올해 10억원(국비 50%, 도·군비 각 15%, 자담 20%)을 들여 농어민 소득원 육성을 위해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8 능가 대동면 일대 12단지 5만3천여 m에서 미꾸라지 양식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합평 대동면 5만3천여 m 양식 단지 조성

쌀 농사 소득의 2배 ... 도, 예산 지원 확대

벼 대체 작목으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미꾸라지와 함께 합평군에 통가개(일명 빠가사리) 양식단지도 조성할 계획으로 내수면 연구소를 통해 치어 생산에 나설 방

박준영 자사는 "개인보다는 법인을 구성해 공동으로 생산·관리·출하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전북·포항 주식회사를 모델로 미꾸라지 양식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평군 미꾸라지 양식단지 유증권(54·해보면) 대표는 "미꾸라지 양식은 벼 재배보다 2배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력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합평경찰서 신경문 서장 노인대학서 법질서 특강

합평경찰서 신경문 서장이 지난 8일 합평 노인대학에서 제 6기 노인대학생 85명을 대상으로 법질서 확립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신 서장은 특강에서 합평지역 경정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과 농민기 교통사고 유발 유형, 노인 성범죄 예방과 안전수칙 등을 강조했다.

노인대학 김모(73·합평읍)씨는 "이번 특강을 통해 기초질서 등 평소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법 규정 준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쫄깃쫄깃 무안 세발낙지 먹으러 오세요

게르마늄 갯벌서 자라 부드러워



최근 어획량 늘어 가격도 떨어져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구조조차 하기 힘들던 무안 세발낙지가 최근 수온이 낮아지면서 어획량이 점차 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늦더위로 인해 그동안 잘 잡히지 않던 세발낙지가 이달 들어 수온이 평년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어획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세발낙지 어획은 낙지어선 1척당 하루에 10~20마리 정도 밖에 잡지 못해 1집시(10마리)당 15만원 이상을 호가했다.

그러나 최근 어획량이 1척당 30~80마리로 증가하면서 가격도 1집시당 5만~7만원선까지 낮아졌으며 앞으로 어획량 증가 추세에 따라 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또 수온기가 흐르는 무안낙지는 부드럽고 쫄깃하며 특히 게르마늄 함량이 kg당 1.63mg이 함유된 드넓은 무안갯벌에서 자라 강한 생명력으로 수도권까지 장거리 택배 유통도 가능하다.

무안군은 전용 포장재와 택배용 아이스 팩을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가을철 성어기에는 직거래 유통과 전국 택배 주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판매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실명거래 정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무안지역 740여 어가에서 590t의 낙지를 잡아 14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화순 모후산 등 전남 3곳 아름다운 숲 선정

화순 모후산 숲길과 보성 응주마을 숲, 담양 양치분교 숲이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숲을 사랑하는 생명의 숲 국민운동' 주관으로 열린 전국 대회를 통해 '마을 숲' 부문에 선정된 보성군 응주마을 응주마을 숲은 270여년 전 조성된 서어나무 등 370그루가 3ha에 걸쳐 집단군락을 이루고 있다.

'숲 길' 부문에 뽑힌 화순군 모후산(918m)은 50년 전 화전으로 인해 불모지가 된 산을 복구 조림한 편백 숲과 소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삼림속 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학교 숲' 부문의 담양 봉산초교 양치분교는 수령 100년이 넘는 느티나무 등 50여 종 80여 그루의 아름다운 수목들이 교정을 둘러싸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는 담양 메타세아리아 도로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곳이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됐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숲이 지역의 명소를 거듭나도록 잘 보존하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희홍기자 chae@kwangju.co.kr

진도서 '해안도로 자전거 대회' 열린다

내일 진도대교 일대로 진행한다.

경기 후에는 자전거 묘기와 국악공연도 펼쳐진다. 박기배 진도 싸이클링 회장은 "이번 행사가 진도군민은 물론 전 국민이 자전거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며 동호인 간 친목을 도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자부는 41km를 릴레이 방식으로, 여자부는 18km를 개인전으로, 여자부는 18km를 개인전으로 진행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Table with 3 columns: 사번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public works and construction projects with details on location and budget.

Table with 3 columns: 사번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public works and construction projects with details on location and budget.

Table with 3 columns: 사번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public works and construction projects with details on location and budget.